



13일 오후 장성고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듣고 있다. 군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장성고 덕분에 장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수능 표준점수 평균 1위를 차지했다. /장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수능 8년 연속 최상위 1등급 비율은 크게 떨어져

표준점수 장성군 1위...전남 1등급 최하위권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201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8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역별 수능 1등급 비율이 1~2위였던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실력 광주' 명성에는 흠이 갔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3일 발표한 2012학년도 수능(2011년 11월10일 시행)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전체 수험생의 학력수준을 보여주는 표준점수 평균이 언어, 수리·나, 외국어 등 4개 전 영역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곤 15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전체 학생들의 평균 표준

점수는 언어 103.6점, 수리 104.1점, 수리나 103.7점, 외국어 104점으로 제주에 이어 각각 2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4.3~3.5점 높았다. 전남의 표준점수는 중하위권을 맴돌았으며, 1등급 비율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는 4개 영역별 1등급 비율이 16개 시·도 가운데 수리(2위)를 제외하곤 4~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개 영역 모두 1~2위를 기록했다. 언어영역은 4.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충남, 제주, 강원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수리(4.8%)는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수리나는 제주와 충남·서

울·전북 등에 이어 5위였다. 외국어(6.2%)는 서울·제주·대구에 이어 4위로 경우 중상위권에 턱걸이했다.

이는 지난 7년간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한 전 시·도에서 1~2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등급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영역별 1~4등급을 합하면 광주지역은 언어 46.8%, 수리 48.7%, 수리나 48.7%, 외국어 46.2%로 제주와 더불어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수능 표준점수 상위 30위 시·군·구에서는 장성군이 언어·수리·수리나·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2011학년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양만권 통합... 무안반도는 제외

지방행정개편위 전국 36개 시군구 통합 추진 7월 이후 여론조사... 해당 지역주민 찬반 의견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상에 광양만권은 통합 불가피 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무안반도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지역 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주민생활 편의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곳은 전주+완주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미건의 지역에서는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과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도청이전 지역, 인구·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가 포함됐다.

여수시·순천시·광양시는 '광양만권 경제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통합이 이뤄져야 할 곳'으로 분류돼 통합절차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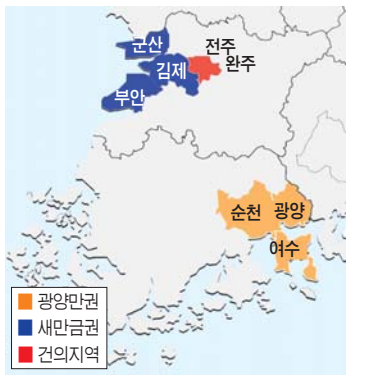
정부는 7월 이후 이들 3개 지역의 의회의 찬반 의견 청취 혹은 주민투

표 실시를 통해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3개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통합추진위 구성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통합이 결정된다.

하지만 광양만권 통합이 실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들 지역의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역별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여수와 광양의 경우 의회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다.

반면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건의로 6번째 시도된 무안반도 통합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지난 4월 실시

호남지역 통합대상 시·군·구



(자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 목포시의 경우 찬성여론이 높았지만 무안과 신안은 통합 반대 여론이 높아 이번 통합추진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반도가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자 목포시는 통합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반면 무안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디자인비엔날레 주제 '거시기 머시기'

내년 9월 열리는 제 5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의 주제가 '거시기 머시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영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13일 "현재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주제는 '거시기, 머시기'로, 29일 광주에서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시기"는 사전에 올라 있는 표준어이지만 호남민들이 많이 쓰는 사투리로, 다른 지역과 구별시키는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내는 말이며 '머시기'도 동질사회적 정서를 강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 총감독의 설명이다.

그는 "쉽게 이해하면서 눈길을 확 사로잡는 디자인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라며 "'광주발(發)' 유머가 느껴진다는 반응도 많다"고 소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추경 편성해 보육대란 막아야" "지방재정 확충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 새 지도부 광주시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새 지도부가 13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보육 복지정책으로 인해 0~2세 무상보육 사업중단 등 보육대란이 빚어질 우려가 높으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추경편성과 보육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또한,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해한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유동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0~2세 무상보육 예산이 새누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면서 예산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0~2세 무상보육정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야

를 비롯한 정부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가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여야 및 정부가 경제협의체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 감세로 인해 국세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줄었고, 광주와 전남만 해도 각각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교육재정교부금까지 감소해 광주·전남의 경우 연간 4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과 함께 지방재정 및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키자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이에

긍정적이어서 개원되면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어느 누구와도 상의 없이 확대한 새누리당의 무상 보육정책이 오는 8, 9월이면 지방비가 소진돼 9월부터는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상보육은 3~4세를 우선 시행하고, 0~2세는 추후에 부분적으로 도와주면 된다"며 현 정부의 보육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날 최고회의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무상보육 지방비 부담 문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우성"이라며 "민주당이 무상보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준영 전남지사 또한, "0~2세 영유아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며 "영유아 교육에 대한 권리를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비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플체인지 The new M-Class 출시
062)226-0001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2년 7월 2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광신대학교
☎062)605-1112, 1063



6월 16일(토) 오후5시~9시

아시아문화마루 夜 벼룩시장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아시아문화전당 앞마당에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예술창작 소품들의 장터가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물건, 즐거운 공연, 재미있는 체험이 있는 아시아문화마루 夜 벼룩시장으로 오세요!

일시 | 6월 16일(토) 오후5시~9시
장소 | 아시아문화마루 (아시아문화전당 앞 광장)
이메일 | sudeng@korea.kr
문의 | 아시아문화마루 / 062-236-0481



※ NAVER | 문화마루 | 공식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